

# David Korty

23 April - 30 May 2009



Untitled(cars parked under trees), oil on linen,  
61 x 76.2 cm, 2009

데이비드 코티는 도시의 일상적 풍경같이 자연스럽게 평범한 모습을 찍고 그렇게 얻은 장면을 특유의 기하학적 양식과 결합해 하나의 회화작품을 완성한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단면을 생생하게, 그러나 심각하지 않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작품 속에 펼쳐진 풍경은 작가뿐 아니라 작품을 접한 모두가 살고 있고, 사진을 찍고, 즐기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와 수채화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 도시인의 삶을 보던하고 심플하게 표현한 그의 작품을 통해 일상의 풍경과 경험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누리보는 건 어떨까.

Noblesse 조소영